

동절기 관리 감독 녹용생산으로 이어진다

- 사료 및 급수급여에 만전 기하고 낙각 여부 유심히 관찰해야 -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혹한기인 1월은 급수 문제로 가장 애를 먹는 달이다. 사슴이 먹는 물은 가운을 해 주고 얼지 않게 해주며 사슴이 식욕이 일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나 쉬운 일이 아니다.

사슴이 먹는 물은 아침, 저녁으로 신선하게 공급하거나 물이 계속 흐르게 하여 얼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강원도의 산간에는 이 또한 어려운 문제인데 음수량이 부족하기 쉽고 식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장염을 일으키기도 하므로 음수관리에 힘써야 한다. 옥수수 엔실리지를 급여하는 목장에서는 위장의 과도한 산성화 방지를 위해 3~4일 간격으로 증조(일명 소다)를 소량씩 섞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장의 산도가 과도하게 산성으로 기울면 조사료의 채식량도 줄어들고 소화율도 떨어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이물

질을 씹으려는 행동이 유발되며 발굽질환이 생겨 발굽이 비뚤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사슴사육을 하면서 겨울먹이로 옥수수엔실리지 만큼 좋은 조사료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위와 같

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증조를 섞어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장되는 증조 1회 급여량은 엘크 60g 레드30g 꽃사슴15g인데 증조 값이 저렴하므로 사슴 농가의 부담은 가벼운 편이다.

엔실리지는 언 것을 먹이면 장염발생과 이상 발효로 설사가 생길 수 있는바 언 것은 녹여서 먹이는 것이 요망된다. 한편 숫사슴들은 이제부터 녹용생산에 대비하여 영양수준을 여주어야 하는데 단백질 수준을 높여준 만큼 에너지 사료수준과 비타민, 광물질의 공급량도 동시에 높여주어야 효과적이다. 비타민과

광물질은 신체내에서 각종기능을 원활히 해주고 조정해주며 성장, 번식,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단백질 수준을 높여주는 방법으로는 열처리된 콩, 대두박 등의 추가 공급 방법이 있겠다. 이에 따라 옥수수의 양을 높여줄과 동시에 비타민 A, B, D, E 외에 마그네슘, 코발트, 동, 칼륨, 망간, 아연, 철 등 미량광물질의 급여수준도 높여야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열처리되지 아니한 콩은 삶아서 급여해야만 콩 속에 함유되어 있는 항트립신 인자를 제거할 수 있어 부작용 없이 콩을 먹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신장(콩팥)기능이 불량한 사슴에게는 열처리되지 않은 생콩의 급여는 부작용만 더할 뿐 콩류를 먹여준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2001년에 출생한 숫사슴은 각관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충분한 영양소나 비타민, 미량광물질(마그네슘, 코발트, 동 등)의 충분한 급여가 필수적임을 기억하자. 이 시기에 비타민이나 미량광물질이 부족하게되면 성장부진, 비정상적 골격발달, 발굽, 모피의 기형 또는 탈모진행, 번식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어미 암사슴에서 비타민이나 미량광물질이 결핍될 경우 앞다리 겨드랑이 근처에 탈모가 진행되는바 평소 관찰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나이 먹은 숫사슴 엘크와 레드디어는 2월 중순경부터 낙각이 일어나 새로운 녹용을 성장시키는 시기이다. 두쪽 모두 동시에 낙각이 이상적이거나 보통 한쪽이 낙각되면 1~2일의 시차를 두고 낙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낙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낙각된 후 3일 이상이 지나도 낙각되지 않는 경우, 한쪽 낙각을 5일 이내에 강제 낙각을 시켜주어야 한다. 낙각이 5일 이상 지연되면 녹용성장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 그 이유이다. 가끔은 각좌에 염증이 생겨 낙각이 심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녹용이 기형이 되고 생산량도 상당량 감소하게 된다. 강제 낙각은 물이장에서 실시하거나 럽푼 또는 셀렉탈 등으로 마취시킨 후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나 마취보다는 물이장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낙각은 나이가 많을수록 일찍 일어나는 것이 통례이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다만 2번째 녹용이 성장되는 개체는 항상 제일 늦은 때에 낙각된다.

낙각이 지연되는 요소는 교배 및 건강과 관련이 있다. 즉 과도한 교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지난해보다 낙각이 지연된다. 그러므로 지난해보다 낙각 일자가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사슴의 건강 이상유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짧게 녹용을 절단하여 녹각과 각좌에 염증이 있을 경우 새로운

녹용이 밀고 올라와도 낙각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강제적 낙각은 필수적이다.

이를 방지하면 각좌의 염증이 확산되고 기형녹용이 되며 녹용생산량 감소는 물론, 내년의 녹용형태까지도 망칠 수 있다. 낙각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낙각된 사슴끼리 합사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이 좋다. 낙각 20~40일을 전후하여 숫사슴에서 식욕부진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내분비 호르몬 이상이다. 이 경우 포피염, 요석증을 일차적으로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내분비 호르몬이상은 대부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이상분비가 원인이며, 포피염과 요석증은 항생제, 염화암모늄, 비타민 A, D, E의 투여 등으로 치료되거나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

기온이 상승하면 이와 소형 진드기에 의해 털이 빠지고 털이 빠진 자리는 처음에는 붉은 색을 띠다가 점차 짙어지고 더 진행되면 피부가 새까맣게 되어 마치 검은 구두약을 발라놓은 것처럼 흉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소형 진드기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부탈모증을 방지할 경우 매년 재발되어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절각철까지도 계속되어 사슴 외모가 형편없는 경우가 있다. 이 피부탈모증은 사이텍틴(CYDECTIN)이라는 액체성 약물을 발라주면 치료효과가 매우 우수하다. 피모에 이가 기생할 경우 자주 핏을 증상을 보이며 이의 기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덜미나 꼬리 주위의 털을 한 움큼 뽑아 털에 붙어있는 이의 알을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때에는 외부 구충제(예를 들면 볼포, 내구본)를 사슴 피모에 살포해 주되 1주일 간격으로 2~3회 반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박멸이 가능하다.

2월 이후에는 2001년에 출생한 엘크나 레드디어의 수컷에서 자란 첫뿔이 성장하여 녹용을 절단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녹용을 절단할 때 주의점은 첫째로 가능한 한 채혈하지 말고 지혈시켜야 한



▲ 첫뿔 절각시 지혈제를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다는 점이다. 첫뿔 절각시 과도한 채혈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약간의 출혈이 우려될 지라도 지혈대만 매어주고 지혈제를 바르지 않는 것이 좋다.

첫뿔을 자르면서 지혈을 목적으로 지혈제를 바르면 각관 성장에 지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각관 주위에 어른 손톱 크기의 튀어나온 돌기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이 돌기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후에 가느다란 녹용으로 자랄 때 각관의 모습이 흉하게 되며 때로는 이마가지가 각관에 바짝 붙어 크는 녹용형태가 이뤄질 수 있다.

넷째로 첫 녹용 절각때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등 영양제를 주사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나중을 위한 정확한 투자이다.

절각을 위해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마취이다. 마취는 절각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용방법이 잘못된 경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돌아오는 3월20일 13시에서 16시까지 천안에 있는 필자의 실험용사슴 50여두를 이용하여 사슴사육농가를 대



▲ 오는 3월 20일 유일사슴목장에서 마취교육이 실시된다.

상으로 마취 실습을 할 계획이다. 마취는 어려우며 위험성이 있지만 요령을 제대로 익히고 주의사항만 지켜준다면 쉽게 자가 절각을 실시할 수 있다. 사슴마취에 자신 없는 분도, 사슴마취에 대하여 정확히 아시고자 하는 분 모두 환영한다. 마취 교육시 조그만 기념품도 준비할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참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순수한 목적의 마취 교육이며 특정 마취약을 홍보하는 행사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필자양행**

〈필자연락처 011-423-5297〉